



“21년만의 현대극...따뜻한 위로 전내고 싶어요”

SBS ‘낭만닥터 김사부’ 한석규

유연석·서현진 등과 연기 호흡

지난 7일 첫 방송을 시작한 SBS TV 의학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는 강원도 산골 병원에 한 젊은이가 도착하면서 시작 된다. 그의 정체는 대형 병원 외과의로 일하면서 성공을 꿈꿨지만, VIP 환자 수술 실패로 지방 병원에 좌천된 강동주(유연석 분)다. 폐병원 같은 이곳을 떠나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는 강동주를 맞아준 이는 천재 외과의로 이름을 날렸던 ‘김사부’ 부용주(한석규)다.

그리고 그 결에는 강동주가 한때 연모했던 선배 의사 윤서정(서현진)이 있다.

‘낭만닥터 김사부’는 두메산골 병원에 은거하는 천재 의사 김사부와 두 후배 의사 강동주, 윤서정 이야기다.

“제가 또 ‘강의질’이네요. 허허허. 연기하면 할수록 동료가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선후배를 떠나서요. 사실 같은 목표와 꿈을 가진 사람들이죠. 누가 먼저, 나중에 했느냐 이 차이뿐이죠.”

한석규(52)는 특유의 나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살짝 웃음을 엿은 채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한석규의 드라마 복귀는 SBS TV 사극 ‘비밀의 문’ 이후 2년 만이다. 장르로 분류하면, 현대극 출연은 1995년 드라마 ‘호텔’ 이후 무려 21년 만이다.

한석규는 강은경 작가가 쓴 기적의도가 마음을 잡아끌었다고 고백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길을 잃은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두 줄의 문구였다.

“제가 대학에서 연기를 공부하고 1991년 MBC 공채 탤런트에 합격하면서 연기로만 살아왔는데 올해쯤에 저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내 직업이 뭐가’ 하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던 한석규에게 ‘의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묻는 ‘낭만닥터 김사부’ 출연 제안이 왔다. 한석규는 자신의 고민을 시청자와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했다.

한석규의 의사 역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그가 맡은 ‘김사부’는 국내 유일무이한 실력을 자랑하는 천재 외과의다. “못 하는 외과 수술을 잘하는 척하러니 스스로 약간 가증스럽다”면서 소탈하게 웃던 한석규는 “피아니스트 역할도 해낸만큼 경험 삼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수술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임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직업이라서 그런 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석규 설정처럼 김사부는 의사 본연의 길을 가고자 부용주라는 이름을 포함해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강원도 산골로 내려온 인물이다.

오로지 환자를 살리는 것만을 소명으로 삼는 부용주의 모습이 좌충우돌하는 후배 의사들에게 자극이 되듯이, 한석규도 끊임없이 탐구철하는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배우의 귀감

을 보여준 모양이다.

서현진은 “한석규 선배가 지지지 말고 연기하라고 말했는데 촬영장에서 그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드문 일이기도 하거니와 그 말씀 또한 정말 큰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서현진은 “전문직 드라마를 정말 하고 싶어서 선택했다”면서 “사실 의학드라마라는 장르가 이렇게 힘들 줄 모르고 뛰어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외워야 할 대사가 다른 드라마의 2배, 아니 3배쯤은 되는 것 같아요. 영어도 많이 써야 하고요. 처음에는 신체 해부도를 다 외워보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건 정말 안 되겠다라고요. 의사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현진은 대신 타이(매듭)나 수처(봉합) 같은 손기술은 “카메라에 제 손이 담길 수 있도록” 부단히 연습 중이라고 소개했다.

2008년 겨울 방송된 MBC TV 드라마 ‘종합병원2’는 정하운(김정은 분), 최진상(차태현)을 비롯한 의사들 이야기를 그렸다. 그 중에는 당시 24살이던 배우 유연석이 맡은 허우진도 있었다.

‘종합병원2’로 TV 드라마에 데뷔한 유연석은 8년 만에 의학드라마 주연을 꿰찼다.

“데뷔작 때 의사로서 보여드릴 게 없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의사 역할을 해보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김사부를 한석규 선배가 한다는 이야기에 ‘더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고, 상대 여배우는 서현진이라고 하기에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싶었고요.” /연합뉴스

톰 크루즈 tvN ‘택시’ 출연



영화 ‘잭 리치: 네버 고 백’ 홍보 위해 내한

영화 ‘잭 리치 : 네버 고 백’의 홍보를 위해 내한한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 출연한다.

‘잭 리치 : 네버 고 백’의 홍보사 영화사하늘은 7일 이같이 전하면서, 톰 크루즈가 ‘택시’를 통해 진행자인 이영자와 22년 만에 재회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톰 크루즈는 지난 1994년 영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홍보차 첫 번째 내한 당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영자와 만났다. 당시 이영자는 톰 크루즈에게 자신을 안아 올리면 체력을 인정하겠다는 농담 섞인 돌발 제안을 했고, 톰 크루즈는 이영자를 거뜬히 안아 들어 화제를 모았다.

홍보사는 “톰 크루즈는 이영자가 ‘택시’ MC를 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가운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웹다잉 소재 새로운 예능이 온다

tvN ‘내게 남은 48시간’ 오는 30일 첫 선

배우 이미국과 박소담이 출연하는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tvN은 ‘웹다잉’을 소재로 하는 ‘내게 남은 48시간’을 오는 30일 밤 11시 첫선을 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미숙, 박소담, 성시경, 탁재훈이 출연하는 ‘내게 남은 48시간’은 출연자들에게 주어진 48시간의 시한부 인생을 들여다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제작진은 “마지막 남은 48시간의 시한부 인생을 통해 그 상황에 온전히 몰입하게 된 출연자들의 다양한 감정을 이끌어내고 그 안에 담긴 인생의 희로애락을 들여다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청자들도 함께 공감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총 12회로 제작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체나 불날>	10 KBC 모닝와이드 30 모닝와이드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감성애니 하루(재)	00 월화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재)	00 양코르 MBC스페셜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특선다큐 <그래도 행복한 학교 가는길> 55 닥터 365(재)
12	00 KBS 뉴스 12	05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2016 중흥 S-클래스 고교동문 골프대회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별별가족	00 1대 100 (재)	20 문화사색 (재)	55 닥터 365
2	00 2016 K리그 클래식 시상식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홀룩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3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55 튜튼생활제조	00 자동차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독? 독! 키즈스쿨 55 파워배틀 와치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특집 어린이 교통안전 창작음악축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재)	00 MBC 이브닝 뉴스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맨 인 블랙박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	00 월화특별기획 <개리어를 끄는 여자>	00 월화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실림하는 남자들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인간극장 스페셜(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10:30 한국기행(재)	13:55 캐니멀	19:30 EBS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9:50 극한직업
06:00 한국기행(재)	<고영숙의 돼지등뼈 감자탕과 시금치 걸절이>	14:5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6:20 세계테마기행(재)		15:05 피터래빗	20:50 세계테마기행 <체코문화기행>
07:00 레이디 비그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20 아웅망영 귀여워(재)	
07:30 로보가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5:35 요술 상자2	21:30 한국기행 <잠막캠프나다 김장 2부 푸른 빛 핀치들>
07:45 꼬마버스 타요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15:45 코코몽 3	
08:00 덩동덩 유치원1~2	12:40 지식채널e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21:50 EBS 다큐프라임 <극한의 땅 2부 시베리아 오이마콘의 겨울>
08:30 얼마 까투리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3:35 뷰티풀 코리아 <천개의 불상이 그린 산수화, 전북동계곡>	16:45 덩동덩 유치원1~2(재)	22:45 글로벌 아바 찾아 삼만리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7:30 로보가 폴리(재)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큐
09:15 출동! 슈퍼왕스	13:40 즐겨온 수학 EBS MATH	17:45 꼬마버스 타요(재)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09:30 이왕! 스페이스 정글	13:50 그림을 그려요2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09:40 부모 <위대한 엄마>(재)		19:00 소피 루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8일(음 10월 9일 甲午)

子

48년생 남의 일에 나서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60년생 수박 겉 핥기식은 무의미하니 핵심 속성을 인식하자. 72년생 시기를 늦추고 자신을 낮추면 해결된다. 84년생 김새가 보였을 때 즉각 대처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10, 76

丑

49년생 독창적인 안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61년생 영 쫓던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 풀어가야만 한다. 73년생 보류한단 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85년생 최선을 다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리라. 행운의 숫자 : 27, 25

寅

50년생 면밀하게 보살피 줘야 위기를 넘기게 된다. 62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결단은 바람직하다. 74년생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86년생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후회한다. 행운의 숫자 : 03, 52

卯

51년생 특별함을 도모하게 되는 진귀한 계기가 주어질 것이니 놓치지 말라. 63년생 중도에 그만 두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리라. 75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87년생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인다. 행운의 숫자 : 57, 04

辰

40년생 부담스러운 의뢰를 받을 수도 있는 날이다. 52년생 조짐을 무시한다면 후유증을 남기에 충분하다. 64년생 관세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76년생 조금씩 변화고 있다. 88년생 불합리하니 속히 개선하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90, 46

巳

41년생 절제하지 않는다면 위험하다. 53년생 하루가 다르게 변하리라. 65년생 기다리는 것은 안 오고 아무 상관없는 것만 보이리라. 77년생 바우면 채워질 것이요, 집착하면 사라질 것이다. 89년생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4, 86

午

42년생 문제점이 보이니 잘 찾아내야만 한다. 54년생 상당히 줄어들겠으니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66년생 떨어져 있어서 인연이 박하다. 78년생 자연되어 왔던 바가 급기가 처리되는 통쾌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94, 79

未

43년생 대세에 휩쓸리면 좇대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니 의견이 대치할 필요가 있다. 55년생 비로소 실호성을 획득하게 된다. 67년생 원한다면 취할 가능성이 크다. 79년생 얻는 바가 많고 호평을 들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1, 65

申

44년생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해결책을 찾게 되리라. 56년생 잘 표시해두어야 망각하지 않을 것이다. 68년생 고정 관념을 버린다면 새로운 면모를 읽을 수 있다. 80년생 자연스러워야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1, 48

酉

45년생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완벽한 관계가 형성된다. 57년생 주변에서 그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 69년생 작용력의 여파를 간파한다면 불리해진다. 81년생 생 외의 성과에 집중해 하리라. 행운의 숫자 : 40, 82

戌

46년생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알자. 58년생 바짝 뒤쫓으면 가까스로 따라잡을 수 있겠다. 70년생 서두를수록 남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 82년생 거추장스러운 것은 차치하고 편하게 임하라. 행운의 숫자 : 91, 34

亥

47년생 조만간에 곧 결정이 날 것임에 틀림없다. 59년생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으니 지금 숙단하기에는 이르다. 71년생 돈이 들어오더라도 쓸 곳이 바로 생긴다. 83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느니라. 행운의 숫자 : 95, 8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